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비엘티 태블릿PC '티블릿'

TV처럼 보는 32인치 태블릿 ... 빔 프로젝터로도 사용

바야흐로 영상의 흥수 시대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상이 됐다. 텔레비전은 화면은 크지만 이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좋지만 화면이 작아 답답하다. 이 같은 장단점을 보완하고 개발한 제품이 티블릿(TVLET)이다. 김중석 비엘티 대표는 사람들이 동영상 감상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2016년 티블릿 개발에 나섰다.

32인치 올인원 태블릿PC TV처럼 보는 올인원 태블릿 '티블릿'은 IPS디스플레이를 채택한 32인치(80cm) 태블릿이다. 무게는 9.3kg으로 집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제품이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가 설치돼 있어 별도의 셋톱박스도 필요 없다.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여러 앱(응용프로그램) 설치도 자유롭다. 게임기 또는 노트북을 연결해 보조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를 포함해 충전만 하면 선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음성인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TV처럼 보는 올인원 태블릿으로 개발했다"며 "거실에서 운동할 때나 주방에서 요리할 때 관련 영상을 재생하면서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인텔과 삼성전자, LG전



김중석 비엘티 대표가 32인치 대형 화면 태블릿PC인 티블릿을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아프리카TV·네이버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함께 감상

빛 반사 줄이고 터치기능 추가 개선된 제품 내년 선보일 것

자 등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장점으로 이어졌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지만 제품 개발 기간이 짧았던 비결 중 하나다. 주요 부품 조달과 생산은 국내 공장에서도 한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는 클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서 목표 금액의 400%인 8000만원 펀딩에 성공했다.

동영상 플랫폼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도 티블릿은 대화면으로 동영상을 감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대표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에서 제품 개발이 시작됐다"며 "사운드 전문 개발진의 기술력으로 최고급 오디오 튜닝을 만들어내는 데 신경 썼다"고 말했다.

여러 동영상 플랫폼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앱도 개발했다. 티블릿을 구매한 고객은 비엘티에서 자체 개발한 '다봄'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유튜브와

Table with 2 columns: 비엘티 (Bielty) and details. Rows include 설립 (2016년 2월), 위치 (경기안양시 관양동), 제품 (티블릿), 특징 (32인치 대화면 태블릿PC).

아프리카TV, 네이버TV, 트위치 등을 한 앱 내에서 보여준다. 김 대표는 "자체 제작 앱인 '다봄'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색을 통해 원하는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실내에서 이동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캠핑족 등에게 반응이 좋다. 김 대표는 "일반적인 TV와 달리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는 빔프로젝터 대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견의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개선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첫 번째 티블릿을 사용해본 고객들이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알려왔다. 이를 개선해 빛 반사를 줄인 제품을 개발했다. 신제품에는 터치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티블릿에 터치 기능이하면 교육용이나 카페와 식당 등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진다"며 "그동안 세상에 없던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서울경인레미콘조합, 공동사업 확대

협동조합은 지금...

서울경인레미콘조합은 2016년 업계 처음으로 품질관리 세미나를 여는 등 조합원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공동 판매를 통해 2000억원의 중기 제품 판로도 개척하고 있다.

배조용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사진)과 60개 조합원은 해마다 1억원의 사랑나눔 성금을 기부하고 청년 채용 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경제모델로 많은 나라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했으나 우리



최근 산업계 새로운 흐름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네트워크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동

구매 및 판매를 통한 비용 절감, 전문인력 역할 대행, 산업 간 협업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자금을 공동 대응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동 사업 활성화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양극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공동판매로 2000억 매출 올려 기부·청년채용 캠페인도 함께 '협동조합은 사회적 자본'

나라에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며 "정책 당국자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익집단이 아니라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과거 정부 주도로 아래 정책 수행기관에서 벗어나 공통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개척과 산업생태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으로 기부, 봉사활동, 청년채용 캠페인 전개 등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940여 개 협동조합으로 이뤄진 중기중앙회도 변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 육성 정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체표준사업인 수 및 활성화, 원부자재 공동 구매 보증 사업 시행,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효과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정책 인프라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비영리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과 지원, 정부 사업의 우선 참여,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이 참고할 만한 연구소의 경제지표는...

삼성, 2013년부터 발표 안해 KDI·대기업연구소 전망치 활용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까지 매년 다음해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경제성장률, 환율, 유가 등의 정보를 담았다. 많은 기업이 이 보고서를 기초로 사업 계획을 짰다. 전망이 틀려도 삼성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삼성은 2013년부터 보고서를 내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쓰고 있다. "많은 기업이 삼성이 발표한 지표에 의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다. 바로미터를 잃은 증권·중소기업들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의 내년 경제 전망을 정리해봤다.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

Table with 5 columns: 기관, 경제성장률, 환율, 유가, 물가상승률. Rows include KDI,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해 2.7%(한국은행 전망)에서 2.5~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감소에 따른 고용 위축, 기계 부채 급증, 무역 갈등을 경기 둔화 요인으로 꼽았다. 해외 투자 은행(IB)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주요 IB 9곳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2.6%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안팎으로 내다봤다. 무역 분쟁과 대북 리스크 등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유가는 배럴당 60~70달러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가 전망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원유 가격이 최근 두 달 새 40%가량 급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셰일 원유 등에 따른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쳤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1.4~1.8%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내수 부진과 소비세·유류세 인하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 분석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타미플루 부작용 급증... 보건당국의 딜레마

사고와 약물간 인과관계 못밝혀 대체약도 없어 소극 대응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사진)'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자 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미플루는 2005년부터 환자,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나 약물이 이상반응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제품은 52개사의 163개 품목에 달한다.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로슈가 수입하는 인산오셀타미비르 성분인 타미플루다. 미국 길리어드가 개발한 제품으로, 1996년 출시 후 전 세계에서 매년 조(兆)단위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가 됐다.



타미플루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2005년 일본에서는 남자 중학생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고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 차도에 뛰어든다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성년자에게 처방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처방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국내에서도 2016년 11세 남자 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뒤 21층에서 추락 사망해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받은 일이 있다.

지난 22일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자 중학생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유족들은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사건 직후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타미플루의 안전 사용 정보를 배포했다. 소아·청소년이 이 약을 복용하면 이상행동을 할 위험이 있어 적어도 이틀간 보호자 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신고된 타미플루 부작용 건수가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복약 지도와 함께 보건당국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Advertisement for PeopleLife GA Bank. Features three people in business attire and text: '피플라이프가 주도하는 GA 빅뱅', '금융판매전문회사를 선도할 미래의 역량있는 매니저 및 FA를 모집합니다!', '모집부서 / 개인영업부서: 본부장 0명, 사업단장 00명, 지점장 000명, FA 0000명'. Includes contact info: 02-6906-9102, www.peoplelife.co.kr.